

피플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움직이는 미술 자료실 '김달진 관장'

한국 근현대 미술자료 40여 년간 수집 정리



한국 근현대 미술정보의 '아카이브'

남들이 이미 간 길을 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앞서 간 이가 없는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 물어볼 이도 없고, 앞서 걷는다는 책임감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www.daljinmuseum.com) 김달진 관장(60·해오름교회)이 열여섯 한국 미술 정보 수집의 영역은 그런 의미에서 '남들이 내 준 길'이 아니었다. 자료 보존에 대한 관심이 거의 황무지였을 때 김 관장은 40여 년간 하루가 멀다하게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발품을 팔아 한국 미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적은 월급에도 묵묵하게 한국 근현대사 미술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걸어온 세월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수집한 수많은 자료들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김달진미술연구소와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발행, 한국미술정보센터(www.artarchives.kr) 운영까지 하고 있어 지금은 온·오프라인 포함 한국 미술 정보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이 길은 불모지였다.

지금도 기자들은 한국 미술계 화백에 관련한 기사를 실을 때 국립예술자료원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닌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찾는다. 다른 곳에는 없는 희귀한 자료들을 낱알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묻기만 해도 입에서 상세한 정보들이 줄줄 나온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고, 모으다 보니 자료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아카이브가 된 거예요. 자료들이 그냥 버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칭들이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 '움직이는 미술자료실' '미술계의 114'이다.

세계의 명화 그림 수집부터 시작

김 관장이 미술 자료 수집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표 수집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가 여성잡지에 컬러로 실린 '이탈의 명화'를 오래 모았던 것.

“그때만 해도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모은 그림을 잘 정리해서 예쁜 켄트지에 붙였지요. '서양 미술사'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

서양미술의 흐름을 유파별로 파악할 수 있어 그렇게 정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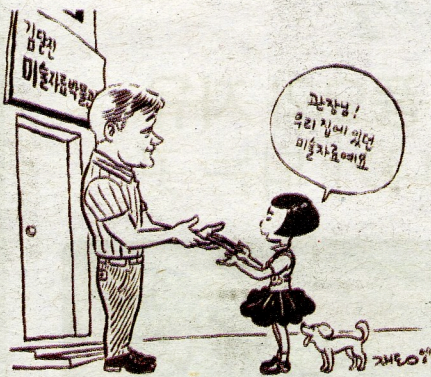
그러다 고3 때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보게 된 후 김 관장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중섭 작가나 박수근 작가 같은 유명작가들은 팜플릿 등 자료들이 있는데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의 자료는 모으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그렇게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전시장지인 월간 '전시계' 사장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어린 나이이지만 그의 열정은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회사 직원으로 미술계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정책으로 전시계가 문을 닫은 후 김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14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이후 1996년에는 가나아트센터로 옮겨 2001년까지 자료실장으로 근무했다.

“금요일이면 출장을 나가 전시장을 순회하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순회 코스는 신문회관을 시작으로 사간동, 인사동 일대, 서울대병원을 가로질러 동숭동으

자료 보존에 대한 관심이 거의 황무지였을 때 김 관장은 40여 년간 하루가 멀다하게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다니며 발품을 팔아 한국 미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미술자료 수집 캠페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는 미술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미술자료 수집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약 250 여 건에 이르는 미술자료 기증이 이루어졌다. 기증된 자료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되며 전시되어 일반에게 열람되거나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로 가는 구간의 모든 전시회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팸플릿 작품과 실제 전시작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유홍준 선생이 주간으로 있던 계간 미술잡지 '선미술'에 칼럼을 통해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약력이나 연보, 미술연표, 미술연감 등에 나타난 오류와 오기, 누락의 사례를 들며 심각성을 환기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공부해 만학도로 성균관대 사서교육원과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서 석사 학위도 받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덕교과서에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하였다.

40년간 수집한 자료 집대성

대표적인 문화지구인 홍대 앞에 위치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는 시대별, 작가별로 빼곡하게 미술자료가 정리되어있다. 김달진 관장이 40여 년간 수집해왔던 자료들 중 사료적 가치가 큰 기록물과 자료를 수집, 분류, 보존, 연구하기 위해 2008년 3월 국내 최초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한 것. 평생 발품을 팔아 모은 단행본·작가화집 2만2000여 권, 정기간행물 335종 1만여 권, 미술학회지 57종 1000여 권, 팸플릿 2만3000여 점, 작가 개인파일 270여 권 등 국내 최대 규모다.

“예술창작과 학술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연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상설전과 기획전으로 소개하며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전문아카이브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출간되었던 우리 미술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자료들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학회지, 논문, 도록 및 팸플릿, 작가 개인파일, 신문기사까지 방대하고 다양한 한국 근현대 미술사 관련 소장품은 우리 미술의 형성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박물관 내에 한국미술정보센터를 마련하여 연구자 및 일반인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또한 미술정보포털 달진닷컴(www.daljin.com)을 통해 신문, 미술기사 제공, 미술계 동정, 미술신간, 달진스페셜, 컬처클럽, 문화에세이, 외국전시 소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디지털미술인 인명부인 인명사전을 보강하여 현재 5,000여 명의 작가가 등록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미술계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미술애호인을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오픈캐스트 운영을 시작하였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우셨습니다.”

미션고등학교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것이 어느덧 가슴 깊이 신앙으로 심어졌다.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을 이제와 돌아보니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이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두드리며 나아갔더니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우리나라 미술 자료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남기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우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즘 무거운 기도제목이 있다.

자료박물관의 전세금을 대출해주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금 지원 기한이 곧 끝나기 때문이다.

“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자료들을 싸 들고 길거리에 나왔을 판입니다. 이제 문화예술 자료를 공적 기관에서 관리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모아 소장중인 자료 전체를 공적 기관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김 관장은 또한 “한국은 해마다 10여개의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회 기록물들을 맡겠다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미술아카이브는 국가의 유산, 공공 기록물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강조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K-Pop뿐만 아니라 K-Art도 중요합니다. 우리 미술이 세계 미술 속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경남 기자



박물관에서는 현재 '한국 근현대 미술교과서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 미술 교과서인 1907년 '도화임본'을 포함, 총 210권의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다.